

소식

2019학년도 임·단협 진행 중...실무소위원회 3차례 회의 마쳐

2019학년도 단체교섭이 10월 31일 개최된 이후 합의된 대로 실무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대학 측은 총무부장, 기획예산부장 2인이, 노조 측은 부위원장, 이영민 대의원, 기획부장 3인이 실무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양 측은 임금협상안과 단체협상안이 상호 연동됨을 확인했고, 특히 임금협상에서 현실적이고 가능한 접점을 찾고 있다. 대학 측은 등록금 수입, 법인전입금 등 예산운영 및 경영상의 난점을 제시하고 있고, 본 노조 측은 장기간 임금동결 및 물가인상률, 대학운영의 공헌도, 노동 능력 및 의지의 재생산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노조는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대학발전 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던 1차 전체회의 원칙대로 조합원의 중지를 모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잠정적인 결론이나 가시적인 결과 등이 나타날 경우 조합원들에게 즉시 공지할 예정이다.

조합원 단합 트레킹...“의견 수렴 통해 차기 대회 준비할 것”



지난 7일(토) ‘2019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가을 단합 트레킹 대회’가 경주 무장산 일원에서 80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무사히 성료되었다. 조합원들만의 행사로, 특히 업무장소를 벗어나 외부에서 평소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조합원 단합을 도모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연간 일정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계획한다면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본 노조는 제반 사항으로 살피고 조합원들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좀 더 나은 공동체 문화행사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_2019. 12. 1. 현재

조합원(A)	휴직조합원(B)	비고(A-B)
195	4	191

전월 활동 동향

일정	내용	비고
11. 1.	노조회보 2019년 11월호 발간	포털 게시
11. 5.	주간회의	집행부
11. 5.	한국노총 경산지역지부 대표자회의	위원장
11. 8.	조합원 단합 트레킹 대회 관련 회의	집행부
11. 9.	2019년 노동조합 가을 단합 트레킹 대회	경주 무장산
11. 12.	인사위원회(서면회의): 포상 및 기타	위원장 등
11. 13.	주간회의	집행부
11. 13.	기획위원회	기획부장
11. 14.	2019학년도 단체교섭 1차 실무소위원회	위원
11. 19.	2019학년도 단체교섭 2차 실무소위원회	위원
11. 20.	주간회의	집행부
11. 21.~22.	전국사립대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위원장, 부위원장
11. 25.	인사위원회(서면회의): 포상 및 기타	위원장 등
11. 26.	2019학년도 단체교섭 3차 실무소위원회	위원
11. 27.	주간회의	집행부
11. 27.	DU GIVE 111 장학회 이사회 참석	위원장
11. 29.	故 성산 및 故 창파 합동추모식 참석	위원장

12월 조합원 祝생일자_양력 기준/무순

김명원	이웅창	권병목	정효정	안태휘
전종득	우선정	윤진영	손동우	이미란
최재영	권기숙	정정석	하정란	권용복
정영구	이경자	김진영		

12월 주요 사업 계획

일정	내용	비고
12. 5.	조합원 설문조사(1차): 각종 현안	조사통계부
12. 6.	노동조합 회보 발간(12월호)	홍보부
예정	단체교섭 실시: 임금 및 단체 협상	위원
예정	노사협의회 실시	위원

오피니언

경계하지 않음을 경계하라

다가올 새해에 시행될 정기인사를 두고 직원사회 내에서는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내부적 문제로 인해 대학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현실비판들이 비등해진 상황이라 획기적 인사정책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바람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인사가 만사다(人事萬事)’라는 말을 흔히들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능할 수 없다는 자기합리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인사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측정하고 승진·배정하는 과정상의 묘한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 인사발표 후, 인사결정자 혹은 평정자의 수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고 되묻는 현상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맥상으로 치부하고, 원칙과 방법을 세우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부 조합원들은 인사의 객관성 혹은 타당성, 적절성 등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현장에서 “잘하는 사람은 과중한 업무를 부서마다 이동하며 부서 내에서도 편중되어 일한다. 못하는 사람은 경미한 업무를 부서마다 이동하며 하되 의지도 노력도 부족하다”는 자책을 한다. 이를 두고 대학은 직원일반의 무능과 연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도 잘 안다. 그렇다면 직원이 무능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지적하는 대학의 보직인사는 어떨까? 일부 보직자들이 직원들에게 마치 어제는 ‘만물박사’를 오늘은 ‘전문박사’를 원하거나 非·反·不규정으로, 사적 감정으로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되는가가 매우 궁금하다. 마음이 곧고 올바른 인재를 발탁하라(哀公問曰 何爲則民服 孔子對曰 舉直錯諸枉 則民服 舉枉錯諸直 則民不服)는 “논어”의 경구를 헤아려 대학은 보직인사를 성찰하기 바란다.

인사정책의 실패는 경영의 실패이며, 결국 공동체의 파산으로 직결된다. 근년간 대학의 잦은 교·직원 인사에서 준비 부족을 드러냈고 결과도 부정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여타 정책도 시행착오로 보기에겐 준비와 계획과 예측과 공감대 형성이 매우 부족했다. 시행착오는 목표를 이루는 전제 위에 있으며, 무한한 시행착오는 실패를 의미한다. 실패를 경계하지 않는 도전은 만용이며, 반복하여 문란(紊亂)하면 실패한다. 대학과 주요 책임자들은 경계하지 않음을 경계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원장>

게시판

민원 신고 안내

본교에서 인권, 성희롱, 남녀차별, 괴롭힘, 갑질행위, 부당노동행위, 규정위반 등 불법적,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분이나 이를 목격하신 분은 노동조합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직제기구 및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도 노동조합이 동반해 드립니다.

☎ 053_850_5760~1 ☒ 면담신청: 위원장, 부위원장, 여성부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조합원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정보, 오피니언 제언, 노조 및 학교 관련 정책, 직거래 및 물품 양도 등의 각종 의견을 주시면 매월 제작되는 본 회보에 반영됩니다. 직거래 장터 및 각종 물품 나눔 마당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관련 정보를 홍보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부장: 053_850_5534